



Carla Wooni Summer Cloin Ponyo Gotham Luka Orange
SeongMin Ben Jjun Lukas Yammy Jennifer Jini Rae Yuri
Jimi Berry BluesHwang

2013년 필리핀 해외이동 체험 학습

☺ 프로그램 목표

- 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배운다.
- ②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시아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같은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③ 소통을 위한 다른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 ④ 살아있는 학습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든다.
- 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체화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필리핀 프로그램

- * 예상 출국일 6월 6일, 예상 귀국일 7월 18일
- * 함께 하는 사람 : 10학년 아이들, 희석샘, 정인샘, 로자 (필리핀 현지 코디)
- * 프로그램
 - 두마게티 필리핀 적응 프로그램 (2주 반)
 1. 필리핀 문화체험 - 아시아노 (비즈공예), 반다망가 (재활용품이용 악기그룹), 테라코타 등
 2. 생존을 위한 언어 연수
 3. 필리핀 자연체험 - 시키호르 섬
 - 비사야 프로그램 (3주 반)
 1. 민다나오 딸란딕 부족마을 (홈스테이)
 2. 보홀 농경마을 (홈스테이)
 3. 까미퀸 에니그마타 트리하우스 (생태 호텔)
 4. 티볼리 부족마을 (합숙)

❀ 목차 ❀

❀ 일정 ❀

- 일정

❀ 기본지식 ❀

- 국기
- 근현대사
- 역사
- 기후
- 교통수단
- 놀이문화
- 따갈로그 회화
- 섬문화
- 음식문화
- 음악문화
- 전통의상
- 환율

❀ 공항정보 ❀

- 출·입국 절차
- 기본적인 영어회화

❀ 알아가기 ❀

- 우리들의 생활 규칙
- 조심해야 할 질병들
- 꼭 지켜야 할 에티켓

❀ 기타 ❀

- Don't worry Be happy 가사
- memo

2013년 평화여행 일정, 6/13 ~ 7/25

6/13 ~ 6/30, 네그로스섬 두마게테에 위치한 필리핀 국제학교 칼리카산에서의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	11	12	13 인천-마닐라 -두마게테 4시 칼리카산도착 기숙사규칙알 림 및 오리엔테이션	14 영어 레벨 테스트 발렌시아 관광 오후 자유시간	15 두마게테 관광 오후 자유시간, 5시까지 돌아오기	16 다우인 해변
17 영어 수업 A- 테라코타 워크샵 B-스텐글라스 워크샵	18 영어 수업 B- 스텐글라스 워크샵 A- 테라코타 워크샵	19 영어수업 오후문화수업 A-전통춤 B-요리 C-반다망가	20 오전에 시키토르 출발	21 시키토르 섬 문화유적지 방문	22 시키토르섬 에코투어 수녀원 방문 유기농코코넛탕 농장방문 cambugahay 폭포	23 시키토르 섬 2시에 출발 3:30 칼리카산 도착
24 오전영어수업 오후문화수업 A-전통춤 B-요리 C-반다망가	25 오전영어수업 오후문화수업 A-반다망가 B-전통춤 C-요리	26 오전영어수업 오후지역발전 소방문, 자연온천	27 오전 비시어수업 오후 근처 Casa cittadini 고아원 방문, 아이들과 문화수업	28 오전 비시어수업 오후 피노일림픽 (필리핀-올림 픽)	29 테라코타 갤러리방문 점심 forest camp에서 바비큐 프로그램 종료	30 10시 쇼핑 저녁 칼리카산 문화의밤

7/1~7/25, 보홀 - 까미권 - 민다나오 에서의 일정

보홀

- July 1 월 - 보홀 도착, Dao Diamond Hotel 에서 휴식
- July 2 화 - 보홀 농아학교와의 교류
- July 3 수 - Sierra Bollunes 농업마을 이동, 휴식, 저녁 문화교류, 민박배정
- July 4 목 -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유기농 농업방식 체험, 강 근처 트레킹
- July 5 금 - Tagbilaran, 생태여행 (초콜릿 힐, 타지어어 원숭이, Loboc River Cruise 점심, Buko king, Firefly, Garden Café에서 저녁, Dao Diamond Hotel로 돌아옴)

까미권

- July 6 토 - Jagna로 이동, 까미권 도착/휴식
- July 7 일 - 에니그마타 예술가 분들과 워크샵, 지역 아이들과의 교류
- July 8 월 - Islakwatsa 투어 (Katibawasan 폭포, Sto. Niño 냉천, 화이트 아일랜드, Ardent 온천)
- July 9 화 - Balbagon 초등학교아이들 수업 / 문화교류
- July 10 수 - Kebila 해변방문, 대합조개에 대해 알아보고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생태보존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Mantigue Island 에서 스노클링 투어

까가얀 데 오로

- July 11 목 - CDO로 이동/ MASSPEC Coop 호텔 /Xavier 대학 방문?
- July 12 금 - 래프팅 / Capitol University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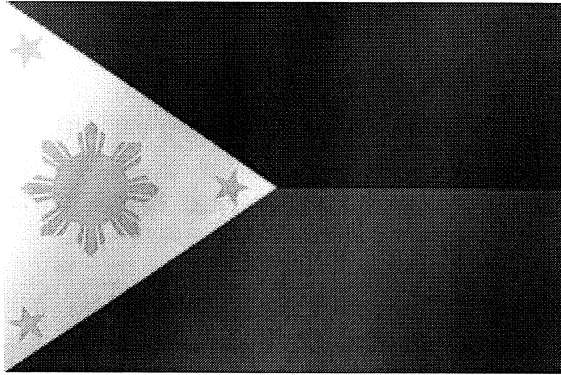
부키드논

- July 13 토 - Malaybalay로 이동, 딸란딕 마을에 도착, 환영의식
- July 14 일 - 전통과 현대음악 워크숍
- July 15 월 - 소일 페인팅 워크숍
- July 16 화 - 딸란딕의 부족인들과의 만남 및 춤 워크숍
- July 17 수 - 저녁에 문화교류 파티

다바오, 세부 호수

- July 18 목 - 다바오로 이동 / Museo Davaoëno 방문
- July 19 금 - Lake Sebu로 이동, 티볼리 마을 / 환영식 및 휴식
- July 20 토 - 티날락 (직물짜기) / 타블로 관찰 / 늦쇠 만들기/ 아이들과의 게임/ 비즈공예
- July 21 일 - 폭포체험, 질라인, "sesung" 티볼리 전통 음식 함께 나누기, 전통춤 및 음악감상
- July 22 월 - Tacurung으로 이동 / Kidapawan 온천
- July 23 화 - 사회적 기업 AKKAP 방문 - 전통의학, 인지학, 바이오다이나믹 농법
- July 24 수 - Davao 시간정리, 두리안 맛보기, 쇼핑 및 휴식
- July 25 목 - 마닐라로 ~ !

국기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공식명칭이 있지는 않지만 필리핀 언어로 [팜방상 와타왓 낭 필리핀나스(Pambangsang Watawat ng pilipinas)], 줄여서 '와타왓'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현재의 필리핀 국기는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이자 독립운동지도자인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1869~1964) 장군이 1897년에 도안한 것으로, 1898년 6월 12일 스페인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처음으로 게양되었다.

흰색은 평등과 박애, 파란색은 평화·진실·정의, 그리고 빨간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각각 상징하는데, 전쟁 시에는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서로 바뀐다. 삼각형 안의 노란색 태양은 자유를 뜻하며, 태양의 여덟 갈래 빛은 스페인의 계엄령에 최초로 대항한 여덟 개의 주를 기린 것이다. 또 세 개의 별은 각각 루손(Luzon)섬, 비사야 제도(Visayas), 민다나오(Mindanao)섬을 상징하는데, 필리핀 국토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에선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국기 사용법이 있다고 하는데, 평화 시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색이 위, 적색이 아래에 위치하지만 전쟁 시에는 그 반대로 적색이 위로 가고 청색이 아래로 가도록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빨간색이 국민의 용기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현대사

16세기에 접어들면서 필리핀은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역사는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은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1521년 필리핀을 발견했다. 마젤란은 세부 지역의 막탄(Mactan) 촌장인 라푸라푸(Lapu-Lapu)와 벌인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마젤란 사후 스페인은 필리핀이 무역 기지로서 최적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식민화 작업에 착수했다.

19세기에 들어 필리핀의 결집된 민족주의는 외세에 대한 강한 반발을 외부로 표출하였는데 이는 스페인의 대 식민지 정책이 유화적으로 변화한 틈을 탄 것이었다. 호세 리살(Jose P. Rizal)이 대표적 인물로 그는 1892년 필리핀민족동맹(La Liga Filipina)을 결성하여 사회개혁을 시도하였다가 까띠푸난(Katipunan)이 일으킨 폭동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어 1896년 식민당국에 의해 처형당했다.

1898년 필리핀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게 양도하였다. 새로운 식민지배 하 필리핀의 정치 및 행정체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영어를 널리 사용하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세웠다. 이는 스페인이 종교를 통해 피하려했던 민족정신 말살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민족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교육을 장려한 것이었다.

1941년 일본군은 예고 없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고, 몇 시간 후 필리핀 곳곳을 공습하기 시작했다. 결국 1942년 1월 일본군이 마닐라를 완전히 점령하였고 1945년까지 필리핀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내세워 백인의 아시아 지배를 종식해야한다는 명분으로 필리핀 통치를 정당화 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듬해 7월 4일 필리핀은 4세기 만에 걸친 외세의 시달림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 독립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지속된 가운데 막사이사이(Ramon Magsaysy, 재임 1953~1957)는 일본 식민지 시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공산주의 세력을 억제하였는데 특히 후크발라하프(Hukbalahap, 抗日人民軍 1942년에 결성된 필리핀의 항일인민의용군)을 와해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후원하는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마르코스가 등장하면서 폐기된 것처럼 보였다. 1965년 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당 출신의 마르코스 상원 의장은 자유당의 마카파갈(Diosdado Macapagal)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첫 임기(1965~1969) 동안 마르코스는 효율적 세제운영과 대외차관 유치로 국가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한편 각종 밀수 및 범죄자와 공산세력을 소탕하였다. 1969년부터 세계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치달음에 따라 필리핀의 경제도 위기를 맞았다.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21년간 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

마르코스의 정적인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Benigno Simeon Cojuangco Aquino III)가 1983년 암살당하자 대중들은 마르코스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1986년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정부세력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마르코스 진영이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결국 군부마저도 마르코스에게 등을 돌려 군사 시위에 참여했고,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86년 2월 25일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의 미망인인 코라손 아키노(Corazon C. Aquino)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는 1987년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 관료제를 마르코스 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7명의 후보가 나선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라모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에스트라다가 199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에랍'이라고 칭해지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대변인으로 전 대통령들의 과업을 이어 받아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실주의(cronyism,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에 의하여 공직의 임용을 행하는 인사관행 내지 제도)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민다나오의 모로(Moro) 무슬림을 자극하여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고, 불법 도박을 묵인하기도 했다. 결국 2000년 11월 도박 혐의로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불명예 퇴진하였다. 이후 2001년~2010년까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가 재임했으며 2010년 5월경부터 지금까지 코라손 아키노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가 통치하고 있다.

역사

필리핀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스페인 정복 이전시대(~1571년)
2.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년~1898년) 필리핀의 역사
3. 미국 식민지 시대(1898년~1946년) 필리핀의 역사
4. 일본의 필리핀 점령(1942년~1945년) 및 독립

1-1. 스페인 정복 이전시대(~1571년)

선사시대부터 1571년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고대 필리핀이라고 일컫는다. 필리핀의 초기 원주민 네그리토(Negrito)가 언제부터 필리핀 땅에 살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3만 년 전에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등지로부터 이주해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기원 전후 시기에는 말레이폴리네시아어족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해안 지역에 살고 있던 네그리토인은 제철과 관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말레이계에 밀려 산악 지대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이들 필리핀 원주민들은 산악과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여건에 따라 정착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바랑가이(Barangay)를 단위로 생활했다. 바랑가이는 30가구~100가구 정도로 구성된 가족 중심의 부락공동체로, 다투(Datu)라는 우두머리를 두고 있었다. 각 바랑가이의 지배자격인 다투는 최고의 행정권 자이자 입법가, 재판관, 군사 지휘자로 대부분의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 필리핀에서는 통일된 국가나 중앙정부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스페인이 정복할 당시의 필리핀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14세기 이후에는 이슬람교도들이 무역을 통해 필리핀에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으로 이주해온 이슬람교도들은 술루(Sulu) 제도에서 민다나오(Mindanao) 섬 일대에 걸쳐 정착하여 이슬람 왕국을 세우고 이 일대의 무역을 통제하기도 했다. 16세기 중반에는 루손(Luzon) 섬 지역까지 이슬람교도들이 퍼져나갔으며, 술탄(Sultan) 또는 라자(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의 국가가 건립되기도 했다. 또 송나라와 명나라의 상인들과도 교류가 있었는데, 특히 정화(鄭和)의 원정 당시 명나라는 6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정벌하기도 했다.

2.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년~1898년)

필리핀의 역사에서 스페인 식민지 시대는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한 1571년부터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이 미국으로 이양된 1898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필리핀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이후부터이다. 필리핀을 처음으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세계 일주에 나선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었다.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의 사마르(Samar) 섬에 상륙한 이래 스페인은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에 마침내 필리핀을 정복했다. 그리고 이 섬나라의 국명을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던 펠리페 2세(Felipe II)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Philippines)으로 정하고, 마닐라에 총독을 두어 이후 327년간이나 지속되는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식민 지배는 스페인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멕시코 총독을 통한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이 유희적으로 변하는 조짐이 보이자 외세에 반대하는 필리핀 민중의 민족주의 정신이 결집되기 시작했다. 1860년에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필리핀에서도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이 나타났다. 1892년에는 '필리핀민족동맹(La Liga Filipina)'이 조직되어 사회개혁을 시도했으며, 비밀결사조직 '카티푸난(Katipunán)'의 무장봉기도 일어났다. 나아가 1896년부터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필리핀의 독립운동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1869~1964) 장군은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자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3. 미국 식민지 시대(1898년~1946년)

1898년 필리핀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게 양도하였다. 새로운 식민지배 하 필리핀의 정치 및 행정체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영어를 널리 사용하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세웠다. 이는 스페인이 종교를 통해 꾀하려했던 민족정신 말살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민족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교육을 장려한 것이었다.

필리핀의 역사에서 미국 식민지 시대는 미국-스페인 전쟁 후 체결된 미국-스페인 강화조약으로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1898년부터 필리핀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포한 1946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미국은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필리핀 독립을 돕기 위해 스페인을 패퇴시키고도 1898년 12월 10일 파리조약에서 2000만 달러에 필리핀 지배권을 넘겨받는다. 이렇게 하여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에서 다시 미국의 식민지로 넘겨지는 처지가 되었다.

필리핀의 독립운동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장군은 필리핀의 독립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미국은 필리핀 점령을 위해 지상군을 파견하여 극렬하게 저항하는 필리핀인 60만 명을 학살했다. 당시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이 아서 맥아더 주니어(Arthur MacArthur, Jr., 1845~1912)로, 그의 셋째 아들은 1945년 8월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후 한국전쟁 때는 UN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이다. 아기날도가 이끄는 무장 독립운동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01년 3월 아기날도 체포를 기점으로 점차 소멸되었다.

미국의 지배 아래에서 필리핀의 정치 및 행정 체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1907년에는 최초의 의회선거가 실시되었고, 1916년에는 양원제 의회가 도입되었다. 1934년에는 미국 의회가 타이딩스-맥더피법(Tydings-McDuffie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10년 후 필리핀의 완전 독립을 보장받기도 했다. 1935년 11월 15일에는 마누엘 루이스 케손(Manuel Luis Quezon, 1878~1944) 대통령의 자치정부(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가 수립되어 미 자치령 정부, 즉 독립 과도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4. 일본의 필리핀 점령(1942년~1945년) 및 독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월, 일본군이 마닐라를 점령했다. 이어 5월에는 코레히도르(Corregidor) 섬이 일본군에 점령되었고, 필리핀 주둔 미군이 일본군에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필리핀은 일본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1943년 10월 14일, 필리핀에

는 조제 파치아노 라우렐(José Paciano Laurel, 1891~1959)이 이끄는 괴뢰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바로 필리핀의 제2공화국이 출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4년 10월 20일,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레이테(Leyte) 섬에 진주하면서 필리핀 영토 내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전투로 인해 마닐라는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이 목숨을 잃었다.

1945년 2월, 미군이 다시 마닐라를 점령하면서 미국의 자치령 정부가 부활하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1945년 2월 3일, 세르히오 오스메냐(Sergio S. Osmeña, 1878~1961) 대통령에게 자치정부를 이양했다. 1946년 7월 4일, 마침내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독립국가 필리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는 마누엘 로하스(Manuel Roxas, 1892~1948)가 당선되었으나 로하스 대통령은 1948년 재임 중 사망했다.

기후

필리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 년 내내 여름이지만 필리핀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름은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라고 합니다. 이시기에는 비가 가끔 오는 정도이고 햇빛만 짹짹해서 매우매우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기는 학교도 방학시준!그 외의 달은 우기입니다. 우리는 6월 달에 출발하므로 우기 때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에서는 (Rainy season) 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주로 게릴라성 비가 많이 오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오면 날씨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도록 비가 오면 날씨가 추워져서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습도가 높아져서 빨래가 마르지 않고 물에 잠기는 지역도 생깁니다.

루존섬 - 마닐라가 있는 북쪽 섬

루존섬은 6월부터 12월 달까지 비와 태풍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주로 필리핀 태풍은 남쪽 섬 동쪽바다에서 생겨서 대각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가 있는 중부지역이나 마닐라가 있는 루존섬으로 가는데 대부분이 루존섬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존에서 북쪽으로 가면 바기오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기오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름 빼고는 주로 긴 옷을 입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바기오 지역으로 많이 놀러간다고 합니다.

바사야스 - 필리핀 중부지방

필리핀 중부지방, 세부를 포함한 작은 섬들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남쪽섬이랑 기후가 비슷하긴 하지만 가끔 태풍이 지나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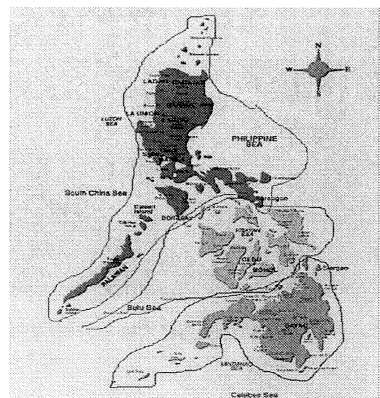
민다나오 - 남쪽큰섬

크기는 한국의 남한크기 정도 되고 태풍이 안 온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동쪽바다에서 발생된 태풍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니 호우도 게릴라성으로 몇 시간 오다가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10년에 한두 번 태풍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태풍은 정말 크나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 섬의 날씨는 해가 짹짹할 때는 한국의 여름과 비슷한 날씨고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대부분 시원하고 선풍기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우기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내려서 상대적으로 덜 덥다고 합니다. 밤까지 이어지면 추워지지만 한번 내릴 때 무척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고 금방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이 좋지 않아서 땅이 잠길 때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필리핀은 한국처럼 숨이 막히는 더위가 아니고 땀이 빠질빠질 나는 더위라고 하네요.

햇빛이 짹짹할 때는 우산이 좋다고 하네요. 참고하셈

(붉은색 - 루존) (노란색 - 바사야) (초록색 - 민다나오)



필리핀의 교통수단

1. 지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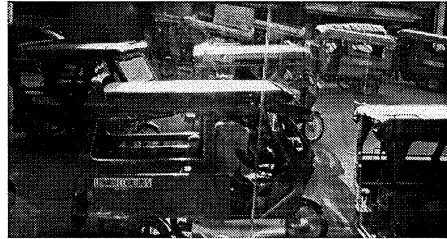
한국의 버스개념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189원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음)

매연이 많이 나고 작은 트럭을 개조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이즈가 작아도 지프니라고 한다. 지프니에 적혀있는 글귀들은 많이 가는 큰 마트나 정류장 그리고 지역 명이 적혀 있다고 한다. 지프니는 마트나 시장에 서있는 것을 타도되지만 그냥 지나가는 지프니를 잡아서 타도된다. 지프니는 남아있는 모든 자리에 사람이 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붕이나 옆에 매달려서 타기 등등 하지만 도시에서는 불법이라서 잘 볼 수 없다. 약간의 멀미와 무섭다는 것이 단점



2. 모토렐라/트라이시클

모토렐라는 오토바이 뒤에 좌석을 이어 만든 차량으로 보통 6명 까지 탈 수 있다고 한다. 가격은 지프니와 같지만 지프니와 달리 짧은 거리 그리고 큰 도로에 안다닌다. 그러면 어찌 해야할까? 모토렐라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지프니로 갈아타면 된다. 입구도 좁고 내부가 매우 좁다고 한다. 불편해도 시원할 듯



3. 씨캣 / 인력거

씨캣은 일단 인력거기 때문에 지프니, 모토렐라의 비해 가격이 좀 싸다. 가격은 135원으로 많이 저렴한 편. 보통 모토렐라 보다 더 가까운 거리와 좁은 길을 갈 때 쓰인다. 초등학교 끝나고 오는 초등학교생들이 주로 타고 다닌다.



필리핀의 놀이문화

◎ 투계

동남아시아 중에서 특히 필리핀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재미있는 눈요기 거리로서 중, 하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투계가 성행한데에는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1521년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330여 년간의 지배시기 속에 받았던 압박과 설움을 이 투계에 반영했다 할 수 있다. 오랜 식민지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카로운 칼날에 투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며 풀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흑인들이 남북전쟁과 노예제도 등으로 당했던 울분을 투계로 달랜 것과는 같은데 필리핀인들은 처음에 닭싸움 자체를 즐겼다.

그러나 지금은 일종의 도박의 개념으로 시중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판돈 또한 매우 크다. 경기장은 한국의 씨름장과 흡사하며 원형구장 중앙으로 닭의 주인이 각자의 투계를 안고 입장하는데 이때 관중들은 닭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 한 후에 돈을 걸게 된다. 경기가 시작되면 두 마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가 죽게 되거나 닭의 주인이 하얀 수건을 던지며 기권 의사를 밝혀야 끝이 나게 된다. 낮은 지능지수를 가진 닭은 상당한 전술을 구사하며 주인이 외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다. 경기시작 5분 후에 별다른 경과가 없을 경우 두발에 칼날을 달고 칼날을 달자마자 서로의 목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투계용 닭은 매일 각종 비타민을 섭취하며 사람도 먹기 힘든 보양식을 먹는 듯 주인인 갖은 정성에 의해 키워지고 훈련되어지며 이런 닭은 누구에게나 재산 1호로 여겨진다.

◎ 카지노

주로 돈이 많은 상류층이 즐기는 필리핀 대표 놀이문화로서 내, 외국인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승률이 매우 높기로도 유명하다. 이탈리아어인 “작은 집(casa)”에 어원을 둔 카지노는 초기에 도박장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오늘날의 카지노는 관광에 각종오락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종합휴양지로 변모하는 추세이다.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카지노 장 역시 포근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주력하고 라이브무대, 각종 쇼와 이벤트 등을 확장하고 있다.

◎ 축제

필리핀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은 축제와 함께 어우러진다. 일시적으로 축제를 이용한 상업적인 기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번성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 즉 장사꾼, 놀이꾼, 미용사, 약장사, 소매치기,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서 저 축제로 옮겨 다닌다.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축제의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타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한다. 저명한 시민들은 축제기간을 통하여 존경을 받는다.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이다. 즉 집을 수리하여 깨끗이 하고 거리와 공장소가 새롭게 단장된다. 종교적인 각종 조각물들을 다시 칠하거나 새 옷을 갈아입힌다. 바로 축제가 민속 예술과 창조성의 돌파구가 된다.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도시는 활기를 띤다. 축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

라 도시의 주요 인사에 의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 조직되고 재정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연습된 후 실시 된다. 미 리 축제계획이 수립되고 책임이 할당된다. 개인이나 단체는 돈이나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인선발 대회를 위한 표 판매, 사회행사나 패션쇼의 입장요금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후원자들은 기부금을 내놓는데 이는 축제예산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교회 행사 중 식사에서부터 교회장식과 여러 날의 집 개방과 아울러 식사대접에 이르기까지 도시 주요 인사들의 지지 없이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때때로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좀 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도록 후원한다. 그리고 손님을 음식을 더 많이 차린 집으로 안내하는 풍습은 나눔이 정신을 기리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 1월 09일 설날 (대규모의 불꽃놀이가 이루어진다)
- * 5월 01일 노동절
- * 5월 06일 용사의 날
- * 5월 1일-30일 플로레스 드 마요(Flores de Mayo Fiesta)
- * 5월 1일부터 30일까지

- 꽃이 만발할 때 필리핀 전역에서 거행되는 축제. 성모마리아와 같은 우아한 흰 옷을 입은 어린 소녀들이 손에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행렬을 이룬다. 필리핀의 축제는 기독교적 요소와 민족적인 요소가 복합된 매우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 * 6월 12일 독립기념일
- * 11월 01일 만성절
- * 11월 30일 국민 영웅의 날
-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연말

크리스마스 기간에 쓰고 남은 돈으로 필리핀인들은 모두 폭죽을 산다. 이것은 중국의 영향으로 '자시'라 하는 밤 11시~새벽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폭죽을 터트리며 한해의 액운을 모두 쫓아낸다는 의미에서 행해진다. 아름다운 폭죽의 불빛들이 하늘을 수놓는다.

◎ 스포츠

필리핀을 대표하는 스포츠는 단연 농구이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국내프로리그가 있는 스포츠로써 아시아에선 한국, 중국, 다음으로 농구를 잘한다. 도로 옆 곳곳의 공터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백화점등지에서 3:3 길거리 농구대회가 많이 행해진다. 농구장 둘레를 겹겹이 둘러 쌀 만큼 많은 관중들이 있으며 매년, 매달, 참가선수들도 많아지고 있어 명실공히 이 나라 최고 인기의 스포츠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켓볼을 들 수 있는데 남자부 포켓볼 1위의 선수가 바로 이 곳에 있을 만큼 포켓볼 또 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허름한 구멍가게에도 다 있을 정도의 뛰어난 보급률을 자랑 한다.이외에도 배구, 탁구 등이 필리핀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놀이 문화로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해방된 뒤, 이 곳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의 개발이 미흡했기에 작은 공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오늘날 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직까지도 축구나 야구 같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들은 그 인기 에 있어서 여전히 기대 이하이다.

◎ 노래

필리핀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일을 하면서, 길을 걷다 가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노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위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 가라오케라 불리는 곳은 규정상 새벽 2시면 문을 닫아야 하지만 마을 곳곳에 한대, 한대 들어서 있는 작은 구멍가게 안의 노래방 기계는 새벽을 지나 아침 이 돌아 올 때까지 계속 울려진다. 물론 소음 방지 벽을 설치해 소리를 작게 낸다던지 하는 것은 없다. 노래, 음악 마큼은 소리가 아무리 커 도 문제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수단인 지프니가 터질듯 한 음악을 틀고 다니고 큰 길 바로 옆에 뺑 뚕린 곳에서 노래방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갈로그 회화

필리핀의 따갈로그(TAGALOG)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눠보아요

한국말	필리핀 말	발음
안녕/안녕하세요 (아침)	Magandang Umaga	마간당 우마가
안녕/안녕하세요 (점심)	Magandang Hapon	마간당 하폰
안녕/안녕하세요 (저녁)	Magandang Gabi	마간당 가비
안녕하세요?	Kumusta ka?	쿠무스타 까?
만나서 반가워	Masaya akong makilala kayo	마사야 아콩 마키라라 까요
고맙습니다.	Salamat po	살라맛 뽀
정말 고맙습니다.	Maraming salamat po	마라밍 살라맛 뽀
네 / 아니요	Oo / Hindi	오오 / 힌디
얼마예요?	Makano po?	마카노 뽀?
이름이 뭐예요?	Anong pangalan mo?	아농 팡알란 모?
제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akong pangalan ay <u>홍길동</u>	아콩 팡알란 이 <u>홍길동</u>
몇 살이에요?	Ilang taon na kana?	일란 타온 나 까요?
지금은 몇시예요?	anong oras na?	아농 오라스 나?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wala akong pera	왈라 아콩 뻬라
배가 고파요.	Gutom na ako	구똌 나 아꼬
서둘러 주세요.	Dali	달리
조용히해! 입닥쳐!	Tumahimik ka!	뚜마히믹 까!

>문장 뒤에 po(뽀)를 붙이시면 존댓말이 됩니다.

*기타말들

<p>1.인칭</p> <p>Ko 나 Ikaw 너 Tayo 우리 Lolo 할아버지 Ate 누나, 언니 Lola 할머니 Kuya 오빠, 아저씨 (Ilocano : Manong)</p>	<p>2.신체</p> <p>Ulo 머리 Paa 발 Mukha 얼굴 Mata 눈 Ilong 코 Bunganga 입 Labi 입술</p>
--	--

<p>Nanay 어머니 Tatay 아버지 Tito 삼촌 Matanda 어른 Bata 어린이 (mga bata : children) Lalaki 남자아이 Babae 여자아이 Anak 자녀</p>	<p>Baywang 엉덩이 Tainga 귀 Kuko 손톱 Buhok 머리카락 Kamay 손 Tuhod 무릎 Balikat 어깨 Ngipin 이 Leeg 목 Tyan 배 Daliri 손가락</p>
<p>3.방향</p> <p>Sa kanan 오른쪽으로 Sa kaliwa 왼쪽으로 Pataas 위로 Pababa 아래로 Ilalim ~의 아래 Tabi ~의 옆에 Sa likod 뒤에 Harap 앞에 Malapit 가깝다 Malayo 멀다</p>	<p>4.높이 · 길이</p> <p>Mahaba 길다 Maiksi 짧다. Taas 꼭대기 Baba 바닥 / 맨 아래 Mataas 높다 Mababa Matangkad 키가 큰 Pandak 키가 작은</p>
<p>5.요일</p> <p>월 - Lunes 화 - Martes 수 - Miyerkules 목 - Hwebes 금 - Biyernes 토 - Sabado 일 - Linggo</p>	<p>6.크기 · 양</p> <p>Madami 많은 Konti 적은 Maliit 작다 Malaki 크다</p>
<p>7.달</p> <p>1월 - Enero 2월 - Pebrero 3월 - Marso 4월 - Abril 5월 - Mayo 6월 - Hunyo</p>	<p>8.숫자 (1~10)</p> <p>1 - isa [이사] 2 - dalawa [달라와] 3 - tatlo [탓로] 4 - apat [아팟] 5 - lima [리마] 6 - anim [아님]</p>

7월 - Hulyo	7 - pito [피또]
8월 - Agosto	8 - walo [왈로]
9월 - Setyembre	9 - siyam [시얌]
10월 - Octubre	10 - sampu [쌈뿌]
11월 - Nobyembre	
12월 - Disyembre	
9.숫자(10~)	
11- labing-isa [라빙-이싸]	9.기타 단어
12 - labindalawa [라빈달라와]	Sinongaling 거짓말쟁이 (sinoka 거짓말)
13 - labintatlo [라빈타틀로]	Masarap 맛있다.
14 - labin-apat [라빙-아팟]	Maganda 아름답다
15 - labinlima [라빈리마]	Pangit 못생긴
16 - labing-anim [라빙-아님]	Sakit 아프다
17 - labimpito [라빔피또]	Pagkain 음식
18 - labingwalo [라빙왈로]	Bigyan 주다
19 - labinsiyam [라빈시얌]	Tahimik 조용한
20 - dalawampu [달라왓푸]	Magulo 시끄러운
21 - dalawampu't isa [달라왓풋 이싸]	Sapatos 신발
25 - dalawampu't lima [달라왓풋 리마]	Malungkot 슬픈
30 - tatlumpu [따틀룸푸]	Masaya 행복한
40 - apatnapu [아팟나푸]	Sayaw 춤
50 - limapu [리마푸]	Kanta 노래
55 - limapu't lima [리마풋 리마]	Wala 없다(nothing)
60 - animnapu [아님나푸]	Laro 게임
70 - pitumpu [피툼푸]	Namin 복수형(plural)
80 - walumpu [왈룸푸]	Grado 등급(grade)
90 - siyamnapu [시얌나푸]	Malimutin - 건망증
100 - sandaan [산다안]	
1,000- sanlibo / 10,000 - sampunglibo	
100,000 -isangdaanglibo	
100,000,000 - isang milyon	

섬 문화

네그로스, 보홀, 카미런, 민다나오

◎ 네그로스섬

면적 1만 3,680km². 인구 약 317만(1990). 필리핀 제4위의 섬으로 동안(東岸)에는 높이 2,460m의 칸라온 화산을 주봉으로 하는 척량산지(脊梁山地)가 있으나, 서부에서 북부에 걸친 지역에 완만한 구릉지와 충적지가 전개되어 있다. 섬 전체가 화산성의 토양으로 덮여 있어 비옥하나, 서부는 남서 몬순의 영향으로 우계와 건계가 있으며, 동부는 1년을 통하여 비가 고루 내린다. 서부에는 19세기 중엽부터 사탕수수의 농원이 개발되고, 1910년대부터 근대적인 제당 공장이 건설되어 필리핀 최대의 제당산업 지대로서 발전했다.

그 밖에 산지와 남부의 타블라스고원에는 삼림자원이 풍부하여 서부와 북부에 걸쳐 제재공장이 많다. 특히, 북부의 파블리카에는 열대지방에서 최대의 경재(硬材) 제재공장이 있다. 또한 쌀·옥수수·담배·코프라·망고·파파야 등도 산출하고 있다. 주도는 두마게테·바콜로디고, 그 밖에 산카를로스·에스카란테 등의 도시가 발달되어 있다.

네그로스 섬의 주 도시

-두마게테

네그로스섬 남동부에 있는 유일한 항구도시로, 마닐라·세부·민다나오섬 등과 정기편으로 연결되며, 코프라 등을 출하한다. 시내에는 도매상·창고·시장 시설 등이 많다. 전통적인 도기, 바구니 등을 만든다. 프로테스탄트계의 실리만대학을 비롯하여 3개의 대학이 있어 필리핀 중부와 남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든다. 주민은 에스파냐계와의 혼혈인이 많다.

-바콜로드

네그로스섬의 북서쪽 해안 평원에 자리한다. 필리핀 최대의 설탕 생산지이며, 20세기 초부터의 근대적 제당업 활동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하였다. 비사얀 제도에서는 세부·일로일로시티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시내에는 제당업 관계회사의 근대적 빌딩과 사탕수수 농원주의 호화로운 대저택이 늘어서 있다. 이 도시의 전신은 에스파냐 수비대의 주둔지(駐屯地)이다. 중앙광장에 오래된 석조 교회와 수도원이 있다.

-산카를로스

1960년 시(市)가 되었다. 세부섬과 툴레도를 가로지르는 타논해협에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이 농지로 사탕수수가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1912년에 설립된 대규모 사탕수수 공장이 있다.

사탕수수 수확기가 되면 툴레도를 왕래하는 정기연락선을 통해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모여든다. 심해 항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 섬을 운항하는 작은 공항도 있다.

네그로스 섬 기후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로 나누어진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의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다. 한편 3월부터 5월까지의 가장 더운 계절에 속한다.

네그로스 섬의 축제

-마스카라 축제

마스카라 축제는 1980년에 시작되었다. 마스카라 축제가 열리는 필리핀 비사얀시의 바코로드는 슈가랜드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사탕수수 생산지였다. 그러나 80년에 들어서면서 설탕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고, 더욱 설탕을 싣고 가던 선박인 돈주양호가 그해 4월 침몰하는 참사가 있어, 바코로드 시의 경제와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바코로드 예술협회가 시민 모두 웃고 있는 탈을 쓰고 축제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마스카라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해 축제의 슬로건은 '단순히 위기일 뿐입니다. 웃으세요' 였다.

마스카라는 대중, 군중을 의미하는 마스 (mass)와 얼굴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카라 (kara)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즉 '마스카라'는 수없이 많은 웃는 얼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웃는 얼굴의 탈을 만들어 쓰고 도시 전체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가 바로 마스카라 축제인 것이다.



-핀타플로레스 페스티벌

필리핀 네그로스 산카를로스에서 진행된다. '핀타플로레스 페스티벌'은 화려한 문신으로 용맹성을 드러냈던 고대 전사 '핀타도스'를 테마로 한 '나빙카란 타투 페스티벌'과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었던 '댄스 오브 플라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다. 축제의 정식명칭인 '핀타플로레스' 역시 '핀타도스'와 '플로레스(Flores: 스페인어로 '꽃')에서 유래했다.



덕분에 페스티벌 기간 동안 거리 곳곳은 화려한 색깔로 물든다. 특히 식민지 이전의 네그로스 원주민의 독특한 문신으로 치장하고 형형색색의 장신구로 꾸며진 의상을 입은 현지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등 볼거리가 풍성한 것이 특징이다.

5일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거리댄스와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전통에 따라

얼굴과 팔, 다리를 꽃 그림으로 치장한 댄서들이 삶에 대한 감사, 풍요롭고 넉넉한 인생에 대한 기원 등의 의미가 담겨 있는 춤 공연을 펼친다. 또한 필리핀 내 수준급 댄서들의 현란한 안무를 볼 수 있는 댄스 경연 대회도 볼거리다.

MEMO

◎ 보홀 섬

보홀 섬(Bohol Island)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의 섬으로 필리핀 내 10번째의 크기 규모이다. 섬 전체가 중부 비사야 지방에 속하는 보홀 주이다. 인구는 약 114만명이며, 면적은 4,117 km²이다. 주요 도시는 보홀 주의 주도 타그빌라란이다. 리조트로 알려진 것 외에도 필리핀안경원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영장류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울창한 정글과 계단식 논 아름다운 팡글라오 섬과 멋진 다이빙 포인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함.

보홀섬 기후

루손 섬과 비사야 제도 북부와 달리 보홀은 태풍의 직접적인 타격을 덜 받는 편이다. 태풍이 레이테 섬과 사말 섬의 산악 지역에서 세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기후는 온화하다. 11월부터 4월 아미한이라는 동북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세력이 강해 가끔 스콜에 휩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은 28도 전후로 가장 온화한 계절이다. 5월부터 7월 여름은 건기이지만 고온다습해서 다소 불편할 정도로 무더운 편이다. 8월부터 10월 하바갓트라는 남서계절풍에 의해 맑은 날씨가 계속되거나, 비가 계속 내려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홀 섬 언어와 종교

언어는 영어 외에 필리핀의 주요 언어 중 하나인 세부아노어, 보호라노어가 사용되고 있다. 주요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회이며, 개신교도 소수 있다. 또한 그레고리오 아글리파이(Gregorio Aglipay)라는 인물이 세워져 필리핀 널리 확산된 독자적인 교회인 필리핀 독립교회(The Philippine Independent Church)는 보홀이 발상지이다. 아글리파이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큰 차이가 없다.

보홀섬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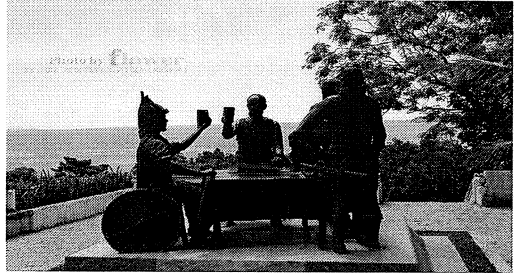
보홀 사람은 핀타도(pintados, 문신을 넣은 사람들)라는, 필리핀에 마지막으로 이주해 온 말레이계 사람들의 후손으로 불린다. 그 문명의 그릇 유적이 마사사, 타그빌라란, 팡라오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보홀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마 "Bo-oi"(보 올)이라는 이름의 현재 타그빌라란 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 (바랑)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스페인 사람과 보홀 섬 사람들과의 최초의 접촉은 1565년에 일어났다. 이 해 3월 25일(율리우스력 3월 16일), 스페인의 탐험가이자 정복자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는 황금과 향신료를 찾아 보홀에 닿았다. 그는 지방 영주들에게 "자신들은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득한 후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1521년에 막탄 섬을 습격하여 전투를 벌였다) 그는 다투(영주) 시카투나와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 평화는 두 사람 사이의 혈맹에 의한 것으로 서로 팔을 그어 흐르는 피를 그릇에 넣어 마시 것으로 <산듀고>(Sandugo 하나의 혈액)로 불린다. 이 혈맹을 축하하기 위해 <산듀고 축제>가 매년 열린다. 산듀고는 보홀 주의 휘장 디자인이 되었다.

보홀섬의 축제

-산두고

7월달에 열리는 축제이며 위에서 말했듯이 스페인 탐험가인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와 시카투나라는 영주 이 두 사람의 혈맹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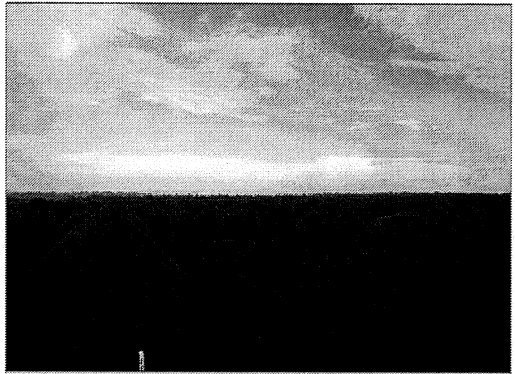


보홀섬 관광지

-초콜릿 힐(Chocolate Hills)

원뿔형의 1270개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다. 원래는 고유의 지명이 있지만 언덕의 모양이 키세스 초콜릿을 닮아서 '초콜릿 언덕(Chocolate Hills)'이라고 불린다. 평소에는 녹색 풀로 뒤덮여 있는데 건기인 12~5월이면 색깔까지 초콜릿 빛깔로 변한다. 초콜릿 언덕에는 달콤한 이름과 달리 슬픈 전설이 내려온다.

옛날 이곳에 거인이 살았는데 짝사랑하고 있던 여인을 안고 도망치다 너무 짝 껴안은 나머지 죽고 말았다고 한다. 여인이 죽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방울들이 이와 같은 언덕으로 변했다는 전설이다. 그러나 전설은 전설일 뿐, 실제로는 모두 자연 현상으로 만들어졌다. 바다 속에 퇴적되어 있던 산호섬들이 융기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214개 계단으로 이뤄진 전망대에 오르면 곳곳에 40~120m 높이의 언덕들이 붕긋하게 솟아있는 장관을 만나게 된다. 원래 계단이 212개였으나 밸런타인 데이인 2월 14일에 맞춰 2개를 늘렸기 때문에 214개가 됐다. 계단 끝에는 종을 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원의 종이 위치해 있다.



◎ 카미긴 섬

카미긴 섬은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 지방에 속한 섬으로, 민다나오 섬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도는 맘바하오이며 인구는 81,293명(2007년 기준), 면적은 237.95km²이다. 보홀 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타네스 주에 이어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섬이다. 카미긴 섬은 7개의 화산과 7개의 화산동이 있어 불의 태생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의 섬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섬으로 범죄의 기록이 거의 없고 테러의 위협이나 지역주민, 외국인들이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다. 지금까지의 경찰기록에 따르면 이 곳에서의 범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돼지나 가축을 도둑맞은 경우와 말싸움 등에 그쳤다고 한다. 일년 열두달 축제가 끊이지 않고 쌀, 사탕수수, 담배, 코코넛 등을 산출하는 기름진 옥토를 가진 화산섬이다.

카미긴 섬 기후

시원한 기후로 낮 평균 기후는 26.9도 정도이고 우기는 6월~12월 건기는 4월~1~3개월 정도라고 한다.

카미긴 섬의 관광지

카미긴 섬은 온천과 화산의 섬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히복히복산을 포함한 6개의 화산과 온천, 냉천이 알려지면서 관광지로 급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히복히복산은 성층 화산이며 높이는 1,332m이다. 정상에는 화구가 있는데 그 곳에는 호수가 있다. 1951년 분화 당시 많은 화산재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으며 사망자 수는 500여 명에 달한다. 지금은 화구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 민다나오 섬

민다나오 섬(Mindanao)은 필리핀에서 루손 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국토의 남쪽 1/3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민다나오 인근 군도이다. 민다나오 군도는 민다나오 섬과 남서부 술루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지역과 26주가 있다. 주요 도시로는 다바오, 카가얀데오로 등이 있다.

민다나오 섬 기후

열대기후이지만,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루손 섬과 비사야 제도에 가기 위해 민다나오에는 잘 상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의 피해는 비교적 적고, 농업 등이 유리하다.

민다나오 특산물

민다나오는 여러 열대과일로 유명하다. 특히 열대 과일 중 한 종류인 두리안의 경우에는 수확기가 되면 보통 과일값으로 살 수 있다. 또한, 상품 작물의 플랜테이션이 유명하다. 카가얀 데 오로(Cagayan de Oro)에는 데르몬테사의 거대 파인애플 농장이, 다바오시 근교에도 돌 사의 바나나 농장이 있고, 가공 공장도 있어서 동북아 각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종교와 민족

오늘날 민다나오는 필리핀 국민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모로인"("무어인"의 의미로 무슬림의 것)의 거점이 되고 있다. 모로인은 민족으로, 섬의 중부 라나오 호수 주변 마라나오, 말레이시아 사바에 걸쳐 사는 타우스구인 등으로 나뉘어있다. 또한 가톨릭 및 이슬람교도 외에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원주민, 루마도(Lumad)도 존재한다.

민다나오의 역사

민다나오에는 중국 및 동남아 중계 무역이 있었지만, 남쪽에서 온 말레이계인들 사이에 이슬람교가 퍼져 1380년 민다나오에서도 이슬람교가 전해지고, 그후에 필리핀 각지에 퍼졌다. 특히 1457년에 술루 제도에 성립된 이슬람 국가 술루 왕국은 전성기에는 민다나오 섬, 팔라완 섬, 보르네오 섬 북부(사바 주)를 통치했다. 필리핀의 대부분의 영토는 스페인에 빼앗겼지만, 보르네오 북부는 영국에 차지하여 19세기말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민다나오가 서양인과 접촉한 것은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이끌었던 스페인 함대가 항해를 했을 때였다. (마젤란은 그해 세부섬 인근의 막탄 섬에서 전사했다). 이후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잇따라 스페인 항해자와 군인, 선교사가 내항하여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가 1565년에 세부를 정복한 직후에는 민다나오 섬 북부도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 하에 들어갔지만, 민다나오 남부는 이슬람 세력이 강해 스페인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16세기부터 현재의 코타 바토 주변에 있었던 마긴다나오 왕국(Sultanate of Maguindanao)은 17세기 술탄의 쿠다라트(Muhammad Dipatuan Qudratullah Nasiruddin)의 통치 하에 민다나오 전역 주변의 섬들을 정복하고 스페인 식민지도 손을 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민다나오 왕국이나 술루 왕국은 점차 쇠퇴하여 19세기에 멸망하고, 민다나오 남부도 필리핀 식민지 정부에 의해 천천히 정복되었다. 다바오 부근이 스페인에 정복당한 것은 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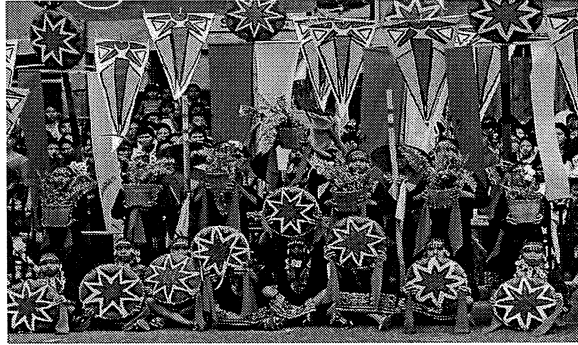
중반이다. 스페인 통치 하에 애니미즘을 믿는 주민들은 기독교로 개종이 진행되었고, 이슬람교의 정착이 오래되어 스페인의 정복자의 영향이 덜했던 남부에서만 이슬람 세력을 간직할 수 있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다나오 섬의 축제

-다바오 '카다야완 사 다보' 축제

'카다야완'은 현지어로 '삶의 찬양'이라는 뜻으로 자연과 풍부한 문화, 풍성한 수확, 인생의 번영 등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축제다.

축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부족들의 전통 음악과 춤, 놀이, 민속예술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박람회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날 펼쳐지는 꽃과 과일로 장식한 배 퍼레이드다. 퍼레이드에 사용되는 배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답게 다바오 전통 난을 비롯해 다바오에서 재배된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로 장식된다. 꽃 배 퍼레이드와 함께 거리에서는 전통과 유명 공연단의 공연이 펼쳐져 축제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축제는 지역민들에 의해 오랫동안 행해져 오다 지난 1986년 공식적인 축제로 인정받았고 2년 뒤인 1988년에 '카다야완 사 다보'라는 공식명칭을 얻게 되었다. 현재는 축제의 규모나 볼거리면에서 '축제의 천국' 필리핀에서도 대표적인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민다나오의 주요 도시

- 다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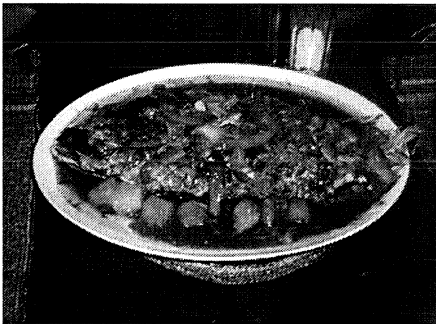
필리핀의 다바오시는 마닐라, 세부에 이어 필리핀의 3번째 중심 도시로 필리핀 남쪽인 민다나오 남단에 위치하며 적도에 가깝고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이다. 그동안 민다나오 섬 일부 지역에 있었던 분쟁으로 섬 전체가 위험한 곳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여행 제한 구역으로 분리되기도 했었지만, Asia Week를 비롯한 권위 있는 단체의 도시 평가에서 필리핀 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언론을 통해 서서히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바오는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부족이 거주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는 다문화 지역이며 필리핀 자국어인 따갈로그어와 더불어 세부아노어를 사용하지만 공용어인 영어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음식문화



띠노랑 따흥(Tinolang tahong)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파는 흥합과 비슷한 요리로 특이한 점은 생강과 양파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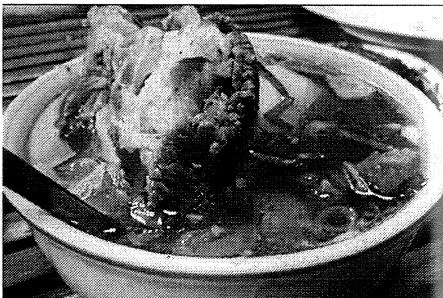
피쉬 에스카베체 (Fish Escabeche)

일반식당에서보다는 고급 전통식당에 있는 요리로 동남아 각 나라에 모두 있으나 양념 소스는 나라별로 다르다. 필리핀은 달콤한 맛이 더 강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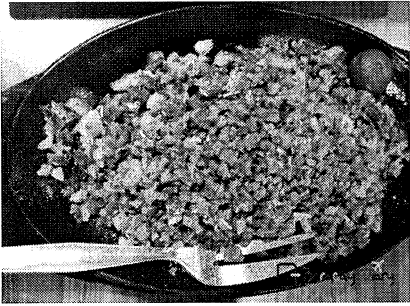
시니강 나 씨푸드 (Shrimp Sinigang)

새우를 비롯한 해물을 같이 넣은 시니강 스프로 연한 생강맛에 담백한 해물향이 일품인 요리로 필리핀 전통 요리중 가장 사랑받는 요리이기도 하다.



불랄로 (BULALO)

소고기의 뼈를 푹 끓여 야채 후추 마늘 고추 후추 등으로 양념하여 먹는 음식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먹는 전통음식이다. 우리나라의 갈비탕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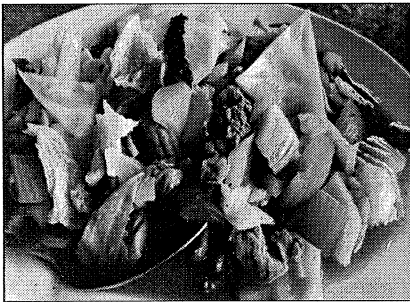


시식 (sisig)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을 다져서 양파와 고추 마늘 등을 넣고

뜨겁게 달군 돌판에 올려 놓고 먹는 필리핀 대표 전통요리이다.

새콤한 깔라만시 즙을 뿌려 먹으면 맛이 더욱 좋다.



참수이 (chapsuey)

아시아에 퍼진 중화문명에 영향을 받은 듯한 필리핀 전통 야채 음식이다.

돼지고기 간 새우 달 내장과 컬리플라워 버섯 바기오콩 등의 야채를 넣어 걸쭉하게 요리하는 것으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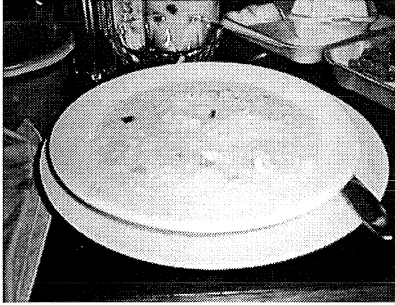
룸삐아 (lumpia)

얇은 밀전병속에 고기와 야채를 튀겨먹는 필리핀 대표 튀김만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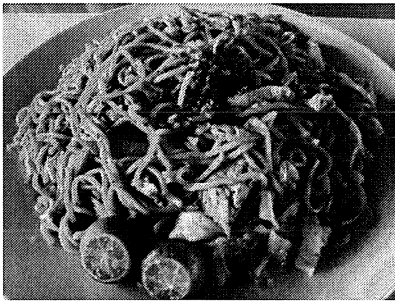
할로할로 (halo halo)

우리나라 팥빙수같은 디저트 음식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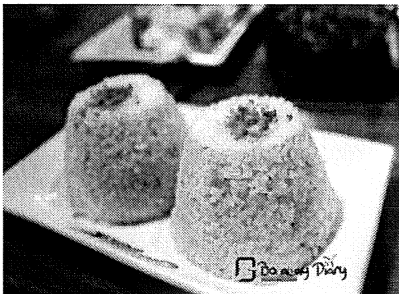
아로스 칼도 (Arroz Caldo)

필리핀의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요리로 한국의 '죽'에 해당하고 태국 음식의 '카오통'과 같다.
아침시간이면 동네의 모든 식당에서 아로스 칼도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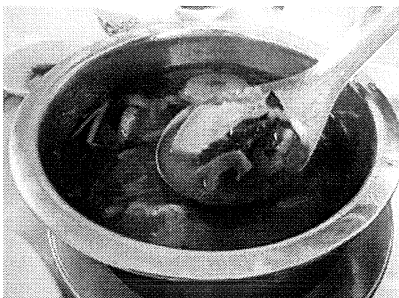
판싯 (PANCIT)

면으로 조리하는 요리법은 중국에서 들어와 이후 필리핀 입맛에 맞게 계속 변형되어 지금의 판싯으로 재탄생함.
지역에 따라 맛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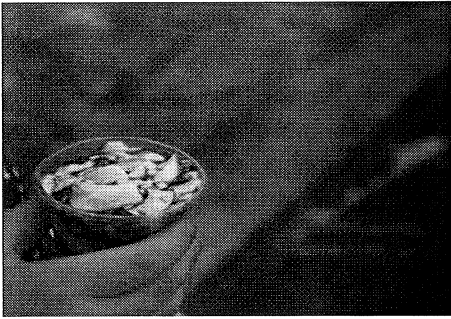
갈릭 라이스

거의 대부분의 필리핀 식당에서는 파는 음식.
고기나 해물과 먹어도 잘 어울림.



시니강 (SINIGANG)

일종의 SOUR SOUP로 조리법도 굉장히 단순하다.
간콩, 타로토란 등의 각종 야채와 시푸드, 생선 또는 고기를 넣는다.



따호 (Taho)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순두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두부에 설탕시럽과 동글동글한 젤리를 얹은뒤 섞어서 플라스틱 컵에 줍니다. 순두부와 설탕시럽의 궁합이 맞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먹어보면 전혀 부담감도 없고 가격도 싼 편(5페소에 10페소)이어서 바쁜 직장인들의 든든한 아침거리가 되어줍니다.



이사우 (Isaw)

크기가 각각 다른 내장들을(특히 닭 내장) 꽃아서 양념을 묻혀서 구운 꼬치요리입니다. 쫄깃한 느낌과 함께 약간은 씹쓸한 뒷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약간은 입맛에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흔하디 흔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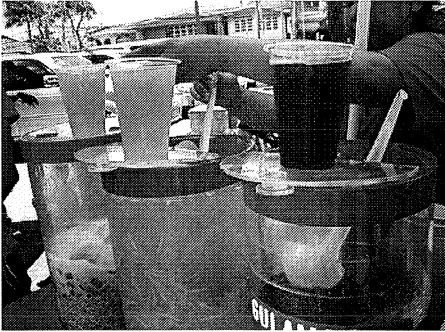
바나나 큐 (Banana que)

필리핀에서 가장 충격적인 음식중에 하나인 바나나 큐입니다. 바나나와 바비큐를 합쳐서 나온 단어인데요, 바나나큐 전용 바나나에 설탕을 듬뿍 묻힌뒤 기름에 바삭 튀겨낸 음식으로써 어린이, 어른 할거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외에도 까모테(필리핀식 고구마) 큐도 있습니다.



(바비큐)

각종 고기(돼지, 닭, 소)등을 꽃은 꼬치는 물론 소시지, 간, 껍데기, 내장, 오징어 등 별에 별 꼬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매우 싼 편이어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만원 어치 사면 한 푸대기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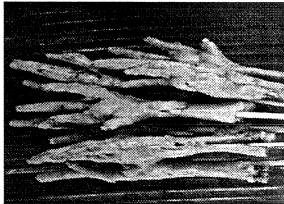
각종 주스들

부코 판단(Buko Pandan), 부코 주스(Buko juice), 오렌지 주스, 굴라만(Gulaman)등 다양한 필리핀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스들입니다. 주로 부코(현지어로 코코넛을 뜻함)를 주재료로한 주스들이 특히 많으며 커다란 수레에 코코넛을 듬뿍 싣고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선한 코코넛 주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런 수레들은 마닐라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며 특히 인트라무로스 와 디비소리아 지역을 가시면 말마따나 널리고 널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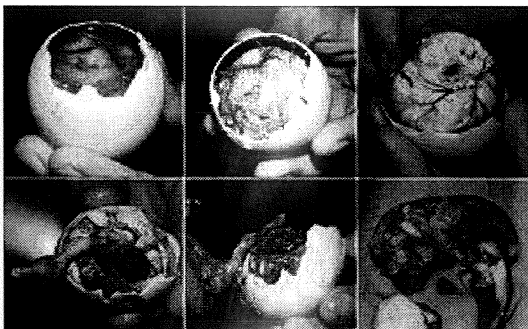
어묵 튀김

필리핀식 어묵 튀김들입니다. 피쉬 볼(Fish Ball), 스쿼드 볼(Squid Ball), 끼기암(Kikiam)등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한 튀김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싸고 쓸쓸한 간식이 없습니다. LRT역이나 학교 근처, 성당 근처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이라면 항상 눈에 띄는 간식거리이며 가격은 보통 한개에 1페소입니다. (필리핀의 물가가 올라가도 이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달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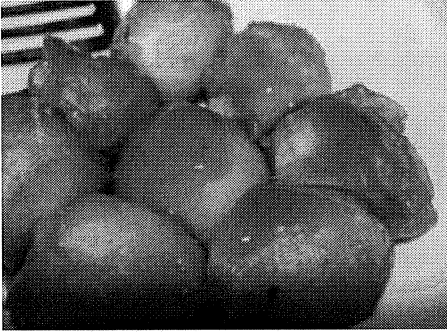
그냥 생 달발을 굽기도 하고 양념을 해서 구워주기도 합니다. 달발 좋아하시면 시도해보세요. 보통 바비큐구이집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룻 (Balut)

세계 여행 TV 프로그램등을 통해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발룻입니다. 부화하기 전의 알을 삶아낸것인데요. 거짓말 안 보태고 그냥 쳐다보면 조금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털이 라든지 연한 뼈라든지... 그렇지만 필리핀에 오셨다면 꼭 시도해보셔야 하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굉장한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스테미나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이 많아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삶은 달걀 튀김

대부분 이 음식을 껍떡(?)이라고 합니다. 주로 메추리 알이나 달걀에 튀김옷을 입히고 그냥 기름에 튀겨냅니다. 이걸 무슨 맛에 먹나? 하지만 옆에 있는 식초소스에 찍어먹으면 이런 별미가 없습니다. 가격도 싼편이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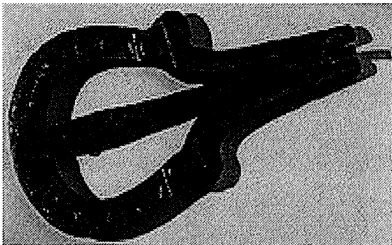
갓 부화한 닭 튀김

여러분은 지금 닭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조그마한 통닭구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뼈들도 연해서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음악의 특징

1. 필리핀 음악문화에 대한 특징은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게 안에 한 대씩 노래방 기계가 있고, 노래방과 소음 방지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노랫소리가 크게 들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길을 걷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아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 음악은 마음의 위안이며 삶의 활력과 같은 의미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필리핀 음악의 특징은 인도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긴 하지만 약 400년전 스페인 지배 영향으로 인해 스페인 문화의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스페인 음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격렬한 리듬감은 필리핀 음악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필리핀 음악은 동남아시아 풍으로 태평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민의 80%이상이 가톨릭교도이지만 현재도 남아있는 원시적인 종교와 모로족이라고 불리는 이슬람교도가 있어서 음악문화에 있어서도 이슬람적인 영향과 아라비아적인 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필리핀의 음악문화는 독자적인 하나의 영향으로 탄생한 음악문화라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필리핀의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로는 주즈하프 (편자형 따위의 금속 테에 철사를 친 원시적인 현악기이다. 이 사이에 물고 손가락으로 현을 튕겨 소리를 낸다.)

코로 부는 피리, 네구멍으로 긴 세로피리와 선울타악기, 인도계의 2현을 가진 쿠디아피, 3현을 가진 바이올린인 기트기트라고 불리는 악기 등이 있다고 한다.

필리핀은 큰 섬만 따져도 11개나 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써 산악지대에 있는 부족사이에서는 오랜전설이나 영웅시 등이 음악에 곁들여져서 불려지는 것이 색다른 특색이라고 꼽을 수 있다.

전통의상

바롱(Barong)은 필리핀 사람들의 전통의상으로, 바롱 따갈로그(Barong Tagalog)의 줄임말. 바롱 따갈로그는, 따갈로그 지방의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따갈로그 지방의 전통 의상이었다가, 점차적으로 필리핀의 전통 의상이 되었다.

남성의 바롱은 바롱 따갈로그(Barong Tagalog), 여성의 바롱은 바룻 사야(Baro't Saya)로 구분해서 부른다.

바롱을 만드는 천은, 마닐라 삼으로 만든 마직물, 바나나 섬유로 만든 주시, 파인애플 섬유인 피나를 엮어서 만든다,

우리나라의 한복과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폭넓게, 자주 입고 입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축제나 기념일, 결혼식 등 중요한 경우에는 대개 바롱을 입는다.



바롱의 기원

바롱의 기원에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열대성 기후로 인해 시원한 옷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페인 식민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후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페인 식민통치자들이 그들과 원주민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바롱을 입을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투명한 천을 사용하게 한 것은, 옷 속에 무기를 감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주머니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 또한 도둑질을 못하게 하

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바롱의 변화

필리핀 원주민 사이에서도, 장사를 통해 큰 돈을 벌거나, 농사를 크게 짓는 등 차츰 중산층이 생겨났지만 단지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바롱을 입어야만 했다. 이러한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로 이들은 원래의 바롱에는 없던 다양하고, 새로운 장식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색상의 바롱이 있으며, 여러가지 색의 자수가 들어간 경우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화된 제품을 구하고 싶다면, 몇 천 페소에 쉽게 구할 수 있다.

환율

*2013년 기준

10페소에 270원

100페소에 2,700원

1000페소에 27,000원

필리핀 화폐단위는 1페소 5페소 10페소 (동전)

20페소 50페소 100페소 200페소 500페소 1000페소는 지폐.

품목	페소	환율 (1페소=30원)
쌀	20kg 기준 900페소	27000원~
달걀	한 판 12개 62~65페소	1,860원~1950원
식빵	27~30페소	810원 900원
우유	1L 70~80페소 / 250ml 25페소	2100~2400원/750원
라면	7.5~12페소 (양이 한국의 절반 정도)	225~360원
망고	1kg 45~68페소	1350원~2040원
파인애플	30~40~페소	900~1200원
두리안	1kg당 83페소 (한 개당 330~400페소)	2490원
바나나	20개 한 묶음 70페소~110페소	2100~3300원
갈라만시	20~30개 묶음 15페소	450원
망고스틴	성수기 1kg당 60페소 비수기 1kg당 400페소	1800~12000원
리치	1kg당 35~40페소	1050~1200원
람부탄	1kg당 35~40페소	1050~1200원
파파야	1kg당 60페소	1800원
멜론	1kg당 60페소	1800원
수박	1kg당 103페소	3090원
오렌지	1kg당 78페소	2340원
용과	1kg당 88페소	2640원
포도	1kg당 115페소	3450원
탄두아이	375ml 30페소	900원
음료수 c2	335ml 14페소 / 1L 24.6페소	420원/740원
립톤 아이스티	1.5L 41.25페소	1240원
트로피카나	1L 45.5페소	1370원
코카콜라	1.5L 36~37페소	1100원

세숫비누	10~50페소 (중간 크기)	300~1500원
샴푸 (펜틴)	200ml 기준 90~110페소	2700~3300원
두루마리 휴지 (날개)	7~15페소	210~450원
건전지	AA형(4개)120페소 / AAA형(4개)52~57페소	4950원
음악 CD	450페소	13500원
극장 영화비	일반 100페소	3000원
치약	100g당 38~91페소	1140~2730원
칫솔	50~150페소	1500~4500원
공중전화	3분 통화 20페소	60원
빗	45~99페소	1350원
면도기	Gillette Mach:304페소 / 1회용:15페소	9120~450원
면봉	21페소	630원
필름	24판 114페소 / 36판 145페소	3420~4350원
사진 현상비	1장 5.50페소	165원

교통수단		
택시	기본 30페소	900원
지프니	6~8페소	180~240원
국내선 항공	1500페소~	45000원~
트라이시클	10페소	300원
오토바이	50~300페소	1500~9000원

필리핀 출입국심사

<우리나라 출국 절차>

1. 인천 공항 도착 -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하여 수속 준비(인천공항 3층)
2. 탑승 수속 - 해당 항공사 수속 카운터에서 여권, 항공권 제시 탑승권(Boarding Pass)받고 수화물을 부친다. 이때 수화물 표는 필리핀 공항을 나갈 때 보여 줘야 하므로 여권과 탑승권, 리턴 티켓과 함께 쉽게 꺼낼 수 있는 가방에 넣어두면 편리하다.
3. 보안검색 - 출국장으로 들어간 후 기내용 짐은 컨베이어에 올리고 손가방과 휴대물품은 바구니에 넣은 뒤 보안 검색대 통과하고 짐을 다시 찾는다.
4. 출국 심사 - 여권과 탑승권 제시 후 출국 도장을 받고 통과
5. 게이트로 이동 -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출국장 게이트를 확인하고 이동. 탑승시간 40분 전까지는 게이트 앞으로 와서 대기
6. 비행기 탑승 후 입국 신고서 작성 - 식사와 음료 서비스 후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입국 신고서 작성

<필리핀 입국 절차>

1. 입국 심사 -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대에 비행기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여권 제출 후 여권에 도장을 받고 통과
2. 수화물 찾기 - 항공사마다 수화물 찾는 곳이 다르므로 자신의 비행기 편명 확인 후 찾기
3. 세관 심사대 - 입국신고서와 같이 작성한 세관신고서 제출
4. 수화물 표 검사 - 공항 밖을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티켓팅 시 받은 수화물표를 보여준 후 통과

<필리핀 출국 절차>

1. 수화물 검색 - 공항청사 들어가기 전 여권과 항공권 제시 후 X-ray 검색을 거쳐 탑승 수속장에 들어감(공항 내에는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만 입장가능, 3터미널은 공항 내에도 일반인 입장가능)
2. 탑승 수속 -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 확인 후 여권과 항공권제시 수화물을 부치고 탑승권(Boarding Pass) 과수화물 표를 받는다.
3. 공항세 지불 - 출국심사장 전 공항이용료 납부 창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공항이용료 550페소(2012.03 기준) 또는 \$13 지불
4. 출국카드 작성 - 출국카드 작성
5. 출국심사 - 여권, 출국카드, 탑승권 제시 후 통과
6. 게이트로 이동 -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출국장 게이트를 확인하고 이동. 탑승시간 40분 전까지는 게이트 앞으로 와서 대기
7. 비행기 탑승 후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질문서, 세관 신고서 작성

<우리나라 입국절차>

1. 입국 심사 - 여권제시 후 통과
2. 수화물 찾기 - 입국심사를 마친 후 입국심사대 전면에 있는 수화물수취안내 전광판에서 본

인의 비행기 편명 확인 후 이동,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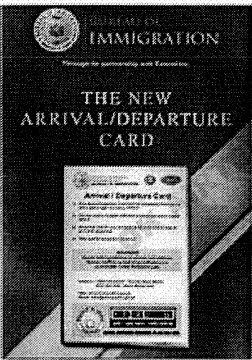
3. 세관신고 - 수화물을 찾은 후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던 세관신고서 제출 후 입국장 출구로 이동

필리핀 출입국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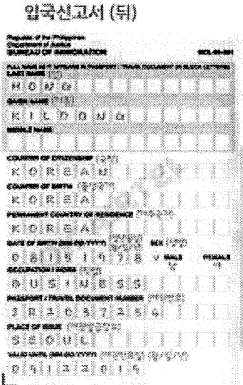
*작성해야 할 서류는 출/입국 신고서, 세관신고서, 검역신고서 이렇게 3개가 있으며 입국심사시, 심사원이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잘라서 입국신고서를 가져가고 출국신고서는 돌려줍니다.

출입국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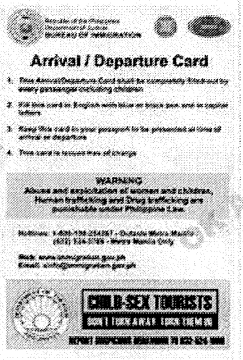
출국신고서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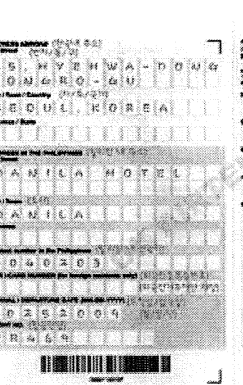
출국신고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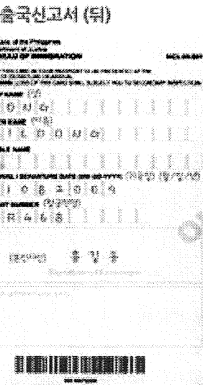
입국신고서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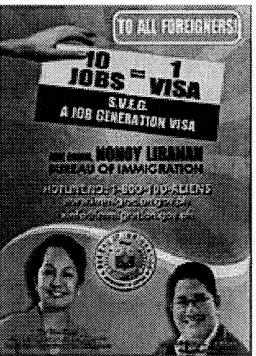
입국신고서 (뒤)



출국신고서 (뒤)



출국신고서 (뒤)



간단한 영어회화

안녕하세요	Hi/Hello	하이 / 헬로
고맙습니다	Thank you	땡큐
(밤, 잠잘 때)	Good night	굿 나잇
내 이름은 ~입니다	My name is ~	마이 네임 이스 ~
이름이 뭐예요?	What your name?	왓 유얼 네임?
얼마예요?	How much is it?	하우 머치 이스 잇?
깎아주세요.	Discount please!!!!	디스카운트 플리스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왓 이스 디스?
이건 너무/조금 비싸요!!	it is too/little expensive!!!!	잇 이스 투/리를 익스펜시브!!
좋지 않은 가격인 것 같네요.	I think it is not good price.	아이 땡크 잇 이스 낫 굿 프라이스
이곳에 어떻게 가나요?	How can I go there?	하우 캔 아이 고 데얼?
난 ~가 필요해요./안필요해요	I need ~/ I don't need~	아이 니드 ~/ 아이 돈 니드~
난 배가 고파요/목이 말라요	I'm hungry/ I'm thirsty	아임 헝그리/아임 썬스티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아임 프롬 코리아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웨얼 얼 유 프롬?
실례합니다.~(뭔가를 부탁할)	Excuse me~	익스큐스미~
제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give me your e-mail address?	쿠드 유 기브 미 유어 이메일 아드레스?
~가 여기에서 얼마나 먼가요?	How far is from here to ~?	하우 팰 이스 프롬 히얼 투 ~?
~있나요?	Do you have ~?	두 유 해브 ~?
식당	restaurant	레스토랑
가게	store / shop	스토어 / 숍
담요	blanket	블랭킷
안대	eye patch	아이 패치

우리들의 생활규칙

모든 규칙은 학교와 똑같이 적용된다.

단, 손전화를 제외한 전자기기(전자사전, mp3, 카메라, 갤럭시 플레이어나 아이팟 등의 스마트기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동중이나 숙소에서만 사용하며 현지인들 앞에서는 기기 사용을 자제하며 홈스테이를 할 때는 기기사용을 금한다.

무선 인터넷은 사용을 금지하며 만일 사용하는 친구를 보았을 때 그 즉시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꼭 지켜야 할 에티켓

존댓말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필리핀의 언어 에티켓

필리핀에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이다. 공용어로 필리핀어(타갈로그)와 영어가 지정되어 있고, 특히 영어는 비즈니스 언어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대부분의 필리핀 젊은이들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존댓말처럼 'Po(뽀)' 혹은 'Opo(오뽀)'를 꼭 붙여야 한다. 'Po'는 상대방에서 'sir' 또는 'ma'am' 등의 존중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같은 말은 대답할 때나 혹은 대화를 나눌 때 문장의 끝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이가 어른과 대화를 할 때, 젊은이가 노인과 대화를 할 때 주로 사용된다. 'Po'와 'Opo'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 경찰, 선생님 등 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용하니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일 것이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실제로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필리핀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최소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거나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기가 쑥스러워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라는 대답이 실제로 '예'의 뜻을 가진 경우도 많지만, 단순히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 대답하는 것일 수 있다. 정확한 대답을 얻으려면 '이 시안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심으로 대답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물어보면 된다.

필리핀 가정에 방문했을 때 지켜야 하는 다양한 에티켓

일반적으로 초대된 집에 방문하면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라며 감탄사를 연발하며 칭찬하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런 사소한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상대방이 원하고 좋아하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호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방문객이 자기집의 물건을 좋아하고 멋지다고 할 경우 그 물건을 주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대된 집에서 불일이 있거나 떠나야 할 경우 어디에 가는지, 용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한다. 주인에게 아무 말 없을 하지 않고 떠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병문안으로 방문 시 꽃보다는 회복을 기원하는 카드나 음식을 가져가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생일이나 졸업을 축하할 때 혹은 프로포즈를 할 때만 꽃이 사용되기 때문이며, 특정한 색깔의 꽃은 죽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방문할 때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손수 만든 쿠키나 사탕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은 서구적인 식사예절을 가지고 있다. 식사 시 음식을 권유 받았을 때 내키지 않아도 조금 맛보는 것이 예의이며, 식사 때 코를 푸는 것은 상당히 매너 없고 에티켓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되오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음식을 입에 넣은 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국물 또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억지로 다 먹는 것보다 적당량 남겨두는 것이 예의이다. 이것은 접대하고 남은 음식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거나 가족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사람들이 식사 후 트림하는 것은 음식이 아주 맛있었음을 의미하니 개의치 않는 것이 좋다. 주님께 감사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장례식장에 방문할 때에는 흰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대부분 기독교 인들은 흰색을 입고 아닌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으니 참고하시면 좋다.

필리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지켜야 할 에티켓

필리핀 사람들은 대개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서양 사람의 경우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필리핀 사람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일단 친해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서슴없이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어디에서 왔는지, 자녀가 몇인지 정도는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직책이나 심지어 월급도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리핀에서 웃는 것은 우정의 표시나 환영의 의미이다. 많이 웃음으로써 사람들과 친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리핀에서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하지만 남자끼리 눈을 마주치면 싸움을 걸거나 도전한다는 뜻이니 조심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금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쓰는 OK를 뜻하는 동그란 손 모양은 필리핀에서 '돈'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는 의미를 지닌 엄지손가락을 위로 세우는 사인이 OK 사인을 의미하니 혼돈하지 않도록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필리핀 사람을 부를 때 검지손가락으로 부르면 안 되는데요. 이런 행동은 무례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Mr.' 나 'Mrs.' 등으로 성을 부르는 것이 좋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을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가리켜 'Stupid'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런 이유 외에도 'Stupid'는 저주만큼 나쁜 의미로 통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바보'라는 장난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대다수의 필리핀 사람들은 남이 무언가를 권유할 때 적어도 한 두 번은 거절해야 한다고 배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로, 적어도 3번 이상은 권유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은 대체로 느긋하고 여유 있는 나라다. 필리핀 사람들은 약속시간에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늦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며, 예고 없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닐라 시내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는 시 조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팁 문화가 활발한 필리핀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팁 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된 나라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팁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필리핀에서는 예의 없는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무조건 팁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용실과 택시 등에서는 적당한 팁을 주어야 하며, 식당의 경우 식비를 내고 무조건 팁까지 낼 필요가 없다.

Don't worry Be happy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for-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후렴)

O o o - o o - h o o - h o o - o o
hoo-hoo-oo-oo-oo-oo-oo Don't worry
Woo-oo-woo-oo-woo-oo-ooo Be happy
Woo-oo-oo-oo-ooo Don't worry, be
happy X2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ha-ha ha-ha ha-ha)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후렴)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re worried,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후렴)

Now there, is this song I wrote
I hope you learned it note-for-note,
like good little children
Don't worry, be happy
A-listen to a-what I say
In your life, expect some trouble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now

(후렴)

O o o - o o - h o o - o o - o o
oo-oo-oo-oo-oo-oo-ooo Don't worry,
don't worry
Oo-oo-oo-oo-oo-oo-ooo Don't do it,
be happy
Oo-oo-oo-oo-oo-oo-ooo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O o o - o o - h o o - h o o - o o
oo-oo-oo-oo-oo-oo-ooo Don't worry
Ooo-oo-oo-oo-oo-oo-oo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Ooo-oo-oo-oo-oo-oo-ooo Don't worry, be
happy

(fading...)

O o o - o o - h o o - h o o - o o
oo-oo-oo-oo-oo-oo-ooo I'm not
worried
Ooo-oo-oo-oo-oo-oo-oo I'm happy
Ooo-oo-oo-oo-ooo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
여기 내가 쓴 노래가 한 곡 있어
당신은 노래 가락 하나하나
부르고 싶어할지도 모르지
걱정하지마, 즐겁게 살아야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야
그럴 때 걱정하면
문제가 더 커질 뿐이야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지

걱정하지 말고 즐거워 해

머리를 기댈 곳도 없고
누군가가 잠자리를 알아간다 해도
걱정하지마, 즐겁게 살아야지
방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안달을 해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라구

날봐, 난 행복하잖아
근심을 털어 버리고 즐거워 해
내 전화 번호 알려 줄 테니까

고민 있으면 전화하라구
널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

돈도 없고, 스타일도 구겨지고
널 즐겁게 해줄 여자친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
근심이 있으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도 같이 실망할거야
걱정하지 말고, 즐거워해

근심은 떨쳐버려
그러지 말라니까
즐겁게 살아야지
얼굴에 미소를 띠어봐
사람들은 실망시키지마
걱정하지마
그게 뭐든지 간에, 곧 해결 될거야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
난 걱정같은 건 안해, 난 행복하잖아

MEMO

MEMO

MEMO

MEMO

